

또한 앞의 탐구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용성이나 명료성은 칼빈의 주석을 이해하는 방법론적인 뼈대이다. 주석적인 긴장의 주제는 처음에는 Battles에 의해서 '기독교강요'에 관계해서 행해졌고 그 후에는 특별히 칼빈의 믿음에 대한 주목과 관련시켜 Bousma에 의해 다듬어졌는데 주석적인 방법론에도 적용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방법론인 '간결성과 용이성'(brevitas et facilitas)은 성경 자체의 양식에 대한 그의 이해에 순응하여 그의 주석 방법론을 형성하려는 의식적인 시도이다. 그것은 또한 신학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는 긴장의 기둥위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신학이나 지식 자체에 대한 칼빈의 관심에 순응하고 있다.

※ 본 논문은 W.T.J., Vol. 149(1987) pp. 153~165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각 주에 나오는 몇 개의 라틴어 원문은 번역을 생략하고 출처만을 제시했다.

(역자 주)

</div

잘 이해할 것이다. 내 자신은 현대 헬라어에 유창하게 되고 그리스에서 2년 동안 살고난 후에야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마 20: 1-16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말씀하셨다. 많은 현대의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놓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하지 못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이 비유에서 경제적 원리를 제거할 수는 없읍니다” 아니면 “그 주인은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의 요점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비유들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뒤늦게 온 일꾼과 하루종일 수고한 일꾼에게 똑같은 삶을 줄 수 있는 그 주인의 권리가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에서는 일치(심포니-목소리의 조화)가 꽤 신성한 것처럼 보인다. 한 당파가 재 협상하려고 시도하면, 다른 당파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필요만 느낀다. 분명히 똑같은 관습이 적어도 유대인들 다시말하면 지붕위의 바이올린 켜는 사람에서 묘사된 러시아 유대인 농부들의 공동사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 “내가 왜 일치를 깨뜨리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합니까?”라고 나중에 말하고 싶어하는 거부된 원고(suitor)에게 증거하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마지막 말(마20: 13-15)은 온전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현대 그리스어는 얼굴과 손으로 하는것 만큼 많이 입으로 말해지는 아름다운 언어이다. 나는 헬라 농장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대답할 때 사용하는 억양(intonation)과 몸짓(gestures)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소. 당신이 한 테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동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삶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준 만큼 나중에 일하기로 한 그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하오. 내가 내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없소? 아니면 내가 활용하다고 해서 당신이 시기하는 거요?

물론 현대의 헬라인들이 고대 유대인은 아니다(현대 팔레스틴의 아랍인들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케네스 이·베일리(Kenneth E. Bailey)의 책들은 예누리해서 읽혀져야만 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두가 성경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동의할 때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한 것에 대해 동의할 때 조차도 우리는 단지 문화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카수토(Cassuto)가 Pentateuch의 “자료비평”에 관해 보여온 것처럼 비평이 현대 서구 학제기에서 그들의 방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현대 성경 비평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연구의 부단한 준비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습과 신앙에 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자. 그들이 사고했던 방식대

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자.

웅변가 바울

고전적 수사학 훈련이 신약성경 서신서 문장에 미친 영향

로마제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만인, 막나니 혹은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니면 위의 세개에 다 해당되든지 혹은 두개에만 해당되든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말하지 않고 헬라문화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지한 야만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 할례받은 유대종교의 추종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을 개망나니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별 볼일 없는 사람, 시민권이 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현저한 예외는 다소의 사울이었다. 자치권이 있는 다소성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은 헬라인 중의 헬라인이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요, 로마인 중의 로마인이었다. 그가 분명히 사도 바울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로 작정하기 전에도 그러했다.

젊은 사울의 아버지는 그의 십대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보낼 정도로 부유했고, 또한 그는 일찌기 그의 어린 아들을 위해 헬라 가정교사를 고용할 정도로 부유했다. 다소의 사울은 헬라교육과 유대교육을 동시에 받았다. 유대인들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근본원리(Keystone)는 성경과 토라(모세오경) 그리고 랍비들의 오경에 대한 주석을 겸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젊은이는 미리 랍비들의 논쟁법(대화술)을 배웠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 대해 그 교육과정은 설득의 기술(the art of persuasion)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을 중심으로 했다. 체육 또한 중요시 여겼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궁극적 교육의 목표는 능력이었다. 그 능력은 육체의 힘이나 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의 소송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의 제안을 법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군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Marc Anthony가 얼마나 슬기롭게 셰익스피어의 “율리어스 시저”에서 인용될 정도로 유창한 웅변가들이 Brutus와 Cassius

를 물리치고 유명한 응변가가 되었는지 상상해 보라.

사도바울은 그 당시의 수사학을 거부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멀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 힘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1-4)

이 선언은 사실이다. 바울의 글들을 보면, 1C의 유능했던 응변가들이 헬라어의 체변적 사용을 멀리했음을 알 수 있다. 교부들이 바울의 글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아마도 아볼로(바울의 사도적 지도하에 그 책을 기록한 자)이 헬라 수사학에 있어서 아주 체변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글들은 헬라 수사학과 랍비들의 대화술 훈련을 받은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설득의 기술을 더 많이 이해하면 할 수록 우리는 바울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랍비들과 보다 친숙한 학자들은 여러분에게 바울의 랍비적 논쟁에 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다. 그런 학자들은 갈4:21-31 즉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그 현저한 예라고 말한다.

책들은 바울의 헬라-로마적 수사학 훈련들이 그의 설교와 서신들에 미친 영향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ns Dieter Betz는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그 예와 부합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서론으로서 몇 가지의 예를 언급할 따름이다.

헬라로마 가정교사들은 제자들에게 각 연설이나 글들이 유발시키는 청중의 태도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도록 도움을 주는 화제들(Topics)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똑 같은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순서로 그러한 화제들을 배열하도록 가르쳤다.

4복음서가 다른 사건을 다른 순서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연대기 순으로 밀하는 전기학자들은 전혀 무능한 사람들로 여겨져 왔다. 복음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각 기록자들이 4복음서들의 전체적인 배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료들과 더 많은 것을(요 20:30; 21:25) 알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저자들이 그 기록들을 발췌해서 일정하게 배열함으로, 성령께서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고대 설득의 한 형태는 응변적인 면에서는 논리적인 연역법(syllogism)

과 비슷한 삼단논법(enthymeme)이다. 만약에 어떤 사실이 어떤 수업의 모든 요소에게 해당되면 그리고 어떤 항목이 그 수업의 요소가 된다면 그 사실은 그 항목에 해당된다.

바울도 종종 그 논쟁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청중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 놓으면서, 논쟁의 세개의 요소들 중의 한 요소를 전술하는 것을 생략해 버린다. 때때로 우리가 바울의 논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견해 보면, 그 삼단논법의 놓쳐버린 요소를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 예가 고전 14:23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 연역법 혹은 삼단논법은 아주 뚜렷하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미쳤다. 당신은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쳤다.

그 재정립된 삼단논법은 우리에게 “IC 고린도교회 밖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왜 미쳤다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그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Festus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처럼(행 26:24)),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이교도의 예배나 기도시에 방언을 말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자들이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그의 몸을 통해 내도록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임에 틀림없고 그의 선지자들이 해석할 수 있었던 소리들이다. 이방인들은 단지 기독교가 다른 신적 열광의 이교(cult)라고 추측하곤 한다.

고대 설득의 다른 형태는 포티오리(fortiori)라는 논쟁이다.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작은 차를 길을 따라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리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나와서, 다리 아래로 내려간 후 다리의 부분을 차례차례로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시멘트를 적재한 거대한 트럭이 그 길로 질주해와서 다리를 지나가 버렸다.

그 어린아이는 그 다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만두고 차에 올라 운전하여 다리를 지나갔다.

이 어린아이의 행동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처음에 그는 “이 다리는 그 각 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 있다면, 충분히 나의 차를 떠 반쳐 줄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따져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시멘트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깊은 심화를 통해 힌트를 주었다. “만약에 이 다리가 그 거대하

고 무거운 시멘트 트럭을 받쳐 준다면, 그것은 확실히 나의 작은 차도 떠 받쳐 줄 것이다". 그는 더 강한 것으로부터 포티오리(fortiori)를 유추했던 것이다.

바울과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종종 그 논쟁을 사용한다. 바울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더 하리요~?"라는 숙어에 의해 종종 표시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고대의 사람들은 그의 상대자가 어디서 마지막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대적이 말한 것을 듣고 미리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다.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요"라는 그의 말이다. ((예) 로마서 6:1, 15; 7:1) 잘 알려진 "선교사"에 관한 본문인 로마서 10:14~15은 16, 18 그리고 19절에서 강한 "그러나(alla)"에 의해 보여진 것처럼 미리 계산한 반론인 것이다.

고대 헬라-로마 가정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유머(humor)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중의 한 사람은 충고하기를 "유머로 진지함과 싸워라 그리고 진지함으로 유머와 싸워라"고 했다. 바울의 빌레몬서는 곤경스런 상황을 유머로 잘 다루는 아름다운 예이다. "유익한" 종 오네시모의 이름에 나타난 익살은 "나의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서 약간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네"라는 호소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마음(splagchna)이라는 단어에도 그 익살(pun)이 잘 나타나 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7) "오네시모 저는 내 심복이라"(12),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20), "무익한"과 "유익한"에도 익살이 나타난다.

아크레스토스와 유크레스토스는 별씨 아크리스토스와 유크리스토스와 거의 같이 발음되어 왔다. (현대 헬라어에서의) "그리스도 없는(christless)" 와 "그리스도의(christful)"는 그 소리들이 구별된다.

고대의 가정교사들은 또한 연설을 함에 있어서 설득의 첫번째 요소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인 윤리성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항상 웅변가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의미했다면 고린도 후서의 바울을 닮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연설하는 사람이 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청중들에게 끼치는 감명과 그가 어떻게 말을 시작함으로 그들의 관심과 호의를 얻는가를 의미한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모습이 매우 연약하다고 소문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독자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의 서신들 서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며, 그가 얼마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소망스럽게도 이러한 예들은 바울서신서들을 접하는 그의 제자들을 격려

해서 고대 웅변가들의 몇몇 글들에 익숙하게 하고 훌륭한 고대의 몇몇 연설들을 서신서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적어도 고대 수사학에 관한 현대의 교과서를 하나라도 읽도록 만들었다.

평이한 단어로 쓰여진 깊은 진리인 요한 복음

특수한 단어들은 특수한 연구를 위해 유용하다. 의사들은 그들의 특수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특수 학교에서 성경과 그에 관한 가르침을 연구하는 여러분과 나도 그렇다. 특수한 단어들은 특수한 학생들이 그들이 의미하는 것을 서로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특수한 단어들은 특수한 분야에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는 전혀 무용하다.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가 심근경색(myocardiac bifarction)으로 고생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 의사는 꽤 배웠지만 우리는 친구들의 건강에 대해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성경의 바울서신들은 몇몇 특별한 단어들을 가진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함으로, 그가 사용한 특수한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장로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겠끔 했다. 혹은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떤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편지가 어느곳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전파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쉬운 단어들만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특별한 용어를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Kenneth Bratcher 박사가 현대의 영어로 된 성경, 현대인을 위한 복음을 썼을 때, 특별한 단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는 단순히 평이한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그 자신이 속한 사회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요세푸스 또한 그가 유대전쟁에 관한 그이 이야기를 그 자신의 백성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말한다)

마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로마인들을 위해 좀 더 짧은 활동적인(fast-moving) 이야기를 기록했다. 누가는 그 사실들을 매우 면밀히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헬라 학생들을 위해 예수님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끌으로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 었던 언어로 말했다.

요한은 평이한 단어로 깊은 진리를 말한 한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서 선택해 낸 것을 사용했다. 그가 그 책의 바로 끝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저자들이 선택해야만 한다. 그들은 영원히 있을 수 없었다. 만약에 그들이 영원히 있었다면, 지금까지 온 세계에 전파된 그 책을 누가 읽으려고 했겠는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여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요한은 더 깊은 부분을 다루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알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다. 창세전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 자신이 때때로 “나는~이다”라는 구절(phrase)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밀씀하셨는지를 알려줌으로 사람들을 도와 주기를 원했다.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작은 보트의 봄체같이 세워진다. 그러한 봄체들은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들은 그 배의 늑재(ribs) 부분들과 뭇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부드러운 접합제(putty)가 그 각 부분들 가운데 있다. 그처럼 요한의 이야기는 많은 더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한은 종종 “그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안(요2:23)”처럼, 때와 장소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함으로 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여준다. 그 각 이야기들이 붙어 고정되어 있는 늑재들(ribs)은 많은 핵심 단어들이다. 요한은 뜻을 박는 해머같이 반복해서 핵심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평이한 단어들로 심오한 진리를 가르친다. 요한의 핵심단어들은 단지 그가 그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바라던 사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것들에는 “세상” “생명” “증거” “믿다” “주다” “영광” “아버지” “그리스도” “유대인” “아들” “구하다” “표적” “정리” “사랑” “물” “영” 그리고 “나는~이다”라는 구절 등이 있다.

이제 “아버지” 그리고 “아들” 같은 요한의 평이한 단어의 사용에서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진리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라. 영원히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 있어 왔다. 이제 그분은 세상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슬렘들은 움직일 수 없는(unmovable) 통치자에게 나아가고, 무당은 춤과 속임(chants)으로 그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들에게 나아온다. 그리고 유교주의자들과 불자들은 그들의 선생에게로 나아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요한은 평이한 단어들만을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더욱 더 적다.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더욱 더 적다. 따라서 그는 여러 의미에서 각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이야기를 연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각 단어가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모든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그것은 인류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어떤 한 의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같이 보인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란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5:33)라고 말씀한다.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양키(Yankee)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것과 같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미국인은 양키이다. 남북 전쟁 당시 남쪽지역에 위치했던 주(state)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양키가 북쪽 지역의 한 주에서 온 사람들이다. 더 좁게 그 주들의 남쪽지역 출신자들에게는 “뉴잉글랜드”라 불리는 지역인 북쪽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양키이다.

뉴 잉글랜드의 남쪽지역 사람들은 북쪽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양키라고 부른다. 그 세계의 주 중에서 두개의 주에 사는 사람들은 극동지역의 주인 마이네 주의 사람들이 양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의 북쪽으로 오면 올수록 양기는 더욱 더 적어진다.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대인”이란 단어도 그와 같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것은 유대인(Jew)과 유대사람(Judean)이 같은 뜻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이 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8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었던 몇몇 유대인에게 말씀하신다(요 8:31). 그들이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요 8:44)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의 참된 양이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귀는 그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갔다(10:29). 대신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이 여러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런 평이한 단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나에게 여기서 멀지 않는곳에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비록 그 섬을 결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이것이 “믿는다”의 꽤 피상적인 의미가 된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면, 그녀는 “예,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앙인격 그리고 당신의 높은 목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결혼한다. 바로 이것이 “믿는다”의 좀 더 깊은 의미가 된다.

요한은 단지 5절(3:12-16) 안에서 두가지 의미들을 사용한다. 8:31절의 유대인은 어떤 곳에서는 중개자였다. 예수님을 믿는자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밀할 때까지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에 충분했다.

진리는 평이한 단어들로 가르쳐 질 수 있다. 나는 단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해온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어떤 세일즈맨들은 그들의 차안에 작은 표시를 해둔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것을 볼 것이다. 그것들은 네 글자로 되어 있다. 그것들은 “어리석은 자여, 단순하라”의 첫 네 글자를 땐 것이다. 그것들은 그가 파는 상품들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것 혹은 그가 배웠던 모든 특수한 단어들을 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그 세일즈맨들에게 상기시켜둔다. 그는 그의 상품들을 팔기 원하지, 그 자신의 배운것을 떠 벌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어느것을 하고 싶은가?

* 1989년 10월 16일 ~ 20일 동안 부산 고려신학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임

(편집자 주)

高麗神學報

제19집

등록 : 1984년 3월 31일 카2-23호

1990. 6. 12 인쇄

1990. 6. 18 발행

편집인 : 남 현 우

발행처 : 고려신학대학원 편집실

인쇄처 : 제 일 인 쇄

☎ 246-4511(㈹)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 ☎ 256-3181~2

편집위원 : 김경근 강대군 이영수 한현제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 한다

값 3,000원